

#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연구

## A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Empathetic Capabilit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to Parents and Behavior Problem

채경희

충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Kyung-hee Chae(khchae@csu.ac.kr)

### 요약

본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애착, 문제행동, 공감능력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으로 탈북학생 중에서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정하여 2020년 4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257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3.0과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애착은 문제행동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애착은 공감능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북한이탈청소년의 공감능력은 문제행동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복지 또는 상담심리 차원에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부모와 올바른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중심어 : | 북한이탈청소년 | 부모애착 | 문제행동 | 공감능력 | 매개효과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behavior problem, and empathetic capabilities. For this study, the researcher chose the study participants among the North-Korean defector high school students who are currently attending high schools. The survey was conducted over the period from April 4 to June 10, 2020. A total of 257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is study. The data of this study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and AMOS 23.0.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arental attachment of the juvenile North Korean defectors had a negative impact on delinquency. Second, the parental attachment of the juvenile North Korean defectors had a positive impact on empathetic capabilities. Third, the empathetic capabilities of juvenile North Korean defectors had a negative impact on delinquency. Four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delinquency, the empathetic capability w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This study showed that, in the perspective of social welfare or psycho-therapy,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programs to enhance the empathetic capabilities of juvenile North Korean defectors while helping them form a healthy attachment to their parents in order to reduce their delinquency.

■ keyword : | Juvenile North Korean Defectors | Parental Attachment | Behavior Problem | Empathetic Capabilities | Mediating Effect |

## I. 서론

국내로 들어온 북한 이탈주민의 수가 2018년 기준으로 30,487명으로 잠정 집계되어 3만 명의 시대로 진입하였다.<sup>1</sup> 이러한 인구 통계는 과거 2000년대를 기준으로 2000년 이후에는 경제난과 자유에 대한 열망 및 정보통신의 유입으로 인하여 북한 내부에서 외부세계와의 접촉과 남한 문화의 막연한 동경과 기대가 탈북의 동기가 되었으며, 자녀에게 보다 좋은 삶의 환경과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남한을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되었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탈북하는 아동 청소년의 비율이 더욱 증가된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가족을 동반한 이주가 거의 불가능했으나, 2000년대 이후 중국이나 제3국에서의 체류기간이 장기화 되면서 먼저 입국한 가족을 따라 이주하여 한국에서 재결합 하는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가족 단위 탈북은 2016년 기준 전체 입국자의 약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 최근에는 자녀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먼저 탈북한 부모가 전문브로커를 통해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2]. 가족과 함께 온 탈북청소년은 정서적인 지지를 공유할 수 있고,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나 죄책감이 적어 단독으로 입국한 청소년들보다 정서적·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3].

그러나 가족과 함께 온 탈북청소년일지라도 탈북이라는 경험과, 남한사회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정서적 불안을 경험하고, 청소년이라는 시기의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부모나 성인으로부터 독립성을 추구하면서 기성세대와 여러 갈등적 상황을 겪기도 한다. 또한 기존의 가치관을 재구성하면서 혼란을 경험하는 등 인간의 전생애 중 북한 이탈청소년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양한 문제행동이 야기되는 시기이기도 한다[4].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도 심리적 부적응양상이 보고되고 있다[4].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인 고통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불안을 꼽을 수 있는데, 다시 북으로 이송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를 끊임없이 경험 하게 되기 때문이다 [5]. 동시에 익숙하지 않은 남한 문화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 등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6][7].

이러한 심리적 부적응 현상은 부모와의 애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8]. 특히 애착은 한 개인이 특정한 사람에 대해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써[9], 많은 연구들이 부모에 대한 애착 요인을 문제행동과 직접적 관계를 맺고 있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성된 안정적 애착은 인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한다. 아동의 경우 높은 부모애착은 초등학교생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을 낮추고, 공격성 수준을 감소시키며 [10][11], 이와 반대로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안정 애착을 형성할 경우 공격성이 높거나 독단적인 경향이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광범위한 불안을 나타낸다[12][13]. 또한 애착의 성향이 높아지면 불안정 애착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우울, 불안, 걱정과 같은 내면화된 문제행동과 비행, 공격성 같은 외현화된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 또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애착이 잘 형성되어 자신의 행동 양식을 배우게 되는데 아동들은 때때로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 행동을 하기도 하고, 성장기의 다양한 갈등과 적응으로 인한 문제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다[15]. 특히 북한 이탈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기에 삶의 터전이었던 북한을 빠져나오면서 겪게 되는 경험과 남한 사회의 경험과 적응을 통한 심리적 불안정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문제행동을 통한 사회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러한 부모애착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공감함을 볼 수 있다. 공감은 인지적, 정서적 요소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타인의 감정이나 심리상태, 내적인 경험 등을 마치 나의 것처럼 느끼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의 공감능력은 대인관계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학교부적응과 교내집단 따돌림에 대한 동조현상 등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는데[16], 이 과정에서 자신의 대한 반성과 비판, 그리고 타인을 공감함으로 써 나타날

1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4](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4)

수 있는 긍정적 효과로 인하여 개인의 문제행동을 억제시킬 수 있다. 또한 아동의 공감수준이 높을수록 문제행동 수준이 낮았으며[17], 부와 모의 애착은 공감능력과 부(-)적 상관성이 있으며, 공감능력은 부모애착 수준을 낮추어 줄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보고 있다[18].

탈북 청소년은 탈북과정 중에 얻게 된 심리적 외상, 남한의 경쟁적 교육체제 속에서 받는 압력, 갑작스런 자본주의 사회와 대중문화 매체에의 노출에 따른 문화적 결핍감과 열등감, 청소년기 남한 또래문화와 외모중심주의의 문화적 압력 등 이들이 동시적으로 감당해 내야 하는 과업을 안고 있다. 그들이 겪었던 이런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그 후유증은 남한사회 적응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자신의 문제행동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19].

무엇보다 청소년기에 누려야 할 교육과 다양한 문화경험의 기회를 가져볼 수 없었던 탈북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적응을 돕는 것은, 탈북청소년 개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할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탈북 청소년의 불안정한 환경에서 형성된 부모애착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부모애착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탈북 청소년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애착

청소년기 부모애착이란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에서 형성하고 있는 애착으로,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빈도는 줄어들지만, 여전히 부모의 보호아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Bowlby(1998)에 따르면, 출생 이후 형성되기 시작한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안전기'

지'로 남아 있으며 위협을 느끼거나 질병으로 고통 받을 때 애착체계가 재활성화 된다고 하였다[20]. 즉, 청소년들은 아프거나 스트레스의 상황에서는 부모에게 돌아옴으로서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Musgrove(1964)는 청소년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친구보다는 부모에게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며[21],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친구보다 부모의 조언을 원한다고 하였다[22]. 이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태로, 급격한 신체적 변화 뿐 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직면하게 되는 청소년들에게 부모가 중요한 안전 기지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모애착이란 부모-자녀와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서적 유대관계로 볼 수 있다.

청소년기 부모애착은 아동기와는 다른 변화를 거치지만 여전히 정서적인 기본틀은 유지되어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애착은 청소년기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23].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성장하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행동함에 있어서 부모가 늘 자신을 지지해주며 응원해줄 것이라는 내적작동모델이 작동하여, 청소년기의 다양한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한국의 북한이탈청소년은 대부분 1990년대 후반 북한의 기근이 심각한 때에 출생하여 신체적으로 영양 및 성장발달 상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24]. 게다가 이들은 북한을 이탈하는 과정 및 제3국에서 체류하는 과정에서 가족해체를 비롯한 심리적 외상으로 여러 가지 고충을 겪게 된다. 또한 한국에 와서는 문화적 차이와 학력차이로 인한 무기력감, 또래관계의 어려움, 가족갈등 문제 등으로 인해 제2의 고충기를 맞게 된다[25]. 현재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대부분 한부모 가정 혹은 부모-자녀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1],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와의 애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 2. 문제행동

청소년 문제행동은 사회적 기대나 규범에 위배되는 이탈행동을 일컫으며,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적 부적응의 결과를 말한다[26]. 청소년기는 독립성을 추구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심리적 갈등과 부정적, 반항적 경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문제행동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27]. 따라서 청소년 시기의 사소한 문제행동이 적절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성년이 되어서 반사회적인 행동 및 공격성 행위로 발전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28].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거나 사회적 관계를 불편하게 하는 일탈, 비행, 범죄행위들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행동에는 반사회적 행위뿐만 아니라 퇴행, 고립, 우울 등의 비사회적 도피적 행동까지 포함된다[29]. 따라서 문제행동이란 규범적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한 행동이나 정상적인 적응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경우, 심리·정신건강의 문제는 입국 후 정착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로 인한 것도 많지만 남한에 입국하기 이전에 북한에서 생활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 사회에서 이미 신체, 심리, 사회적 외상을 많이 경험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과는 전혀 다른 남한 문화에 접하게 되면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편견과 차별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30][31]. 북한 및 탈북과정에서의 지속적인 고통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신체적인 성숙과 건강을 위협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스트레스들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북한이탈청소년은 불안, 우울 같은 심리적 증상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32], 비행이나 일탈 행동,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행동[33]들을 통해 심리적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 3. 공감능력

공감능력(empathy)이라는 개념은 19세기 말, 리프(Lipps)가 심리학 분야에서 'Einfuhie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등장 하였다[34]. 'Einfuhien'은 '안에(ein)'과 '느낀다(fuhien)'의 합성어로 '들어가서 느낀다'의 의미이다[34]. 공감 능력은 단일한 차원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인지적 공감 능력과 정서적 공감 능력으로 구성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35].

공감(empathy)은 다른 사람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

식하고 이해하면서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하며[36],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공감능력이라 할 수 있다[37]. Baron-Cohen(2013)은 공감하기를 상대방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는 공감과는 달리, 왜 그런 감정을 가졌는지 이해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적절한 정서로 반응하려는 동기라고 하였다[38]. 따라서 공감능력이란 다른 사람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적절하게 반응을 보이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이탈청소년의 지원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단순히 적응과 부적응으로 북한이탈청소년의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한국교육개발원(2012)에 따르면 적응과 부적응이라는 개념적인 틀로는 북한이탈청소년이 경험하는 변화의 과정을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이상의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39]. 동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탈청소년 개인의 역량과 적응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북한이탈청소년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시각과 관심도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북한이탈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남한 청소년과의 상호인식 및 관심의 문제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39]. 이 외에도 진정한 의미의 남북한 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남한 청소년의 편견 없는 태도 형성 및 상호 부정적 고정관념의 제거가 필수적인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40]. 북한이탈청소년이 학교에서 남한 청소년과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기 위해선 경제적인 지원,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남한 청소년 역시 북한이탈청소년이 자라 온 배경과 문화에 대한 이해, 북한이라는 곳에 대한 올바른 인식, 남한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공감 및 북한이탈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확립과 그에 대한 존중 등과 같은 마음을 나누는 방향의 통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4. 선행연구

#### 4.1 부모애착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

학생의 부모 애착 형성에 관심을 두고 지금까지 이루어

어진 많은 연구들에서는 안정애착을 형성할 경우, 문제행동을 줄이고 학생이 속한 집단에서 잘 적응한다고 보고하고 있다[41][42]. 문은식(2003)은 청소년의 애착안정성과 학교생활 적응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부모, 교사, 또래친구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그들의 학교생활면의 적응행동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애착과 청소년의 심리적 기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Allen, Moore, Kuperminc과 Bell(1998)도 부모에 대한 안정 애착이 형성된 청소년은 또래에 의해서 더 잘 수용되고, 내면화된 문제행동과 외현화된 문제행동 모두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 애착이 학생이 속한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 바 있다[44]. 이런 적응과 관련하여 안정 애착의 중요함을 강조한 Simons 외(2001)는 어머니에 대한 청소년의 안정 애착은 또래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사회 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42]. 이것은 다시 이 사회 인지는 공격성에 부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결국 안정 애착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또래와의 관계를 원만히 이루게 하거나 공격성이 낮아지게 하는 등 부모와의 안정 애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애착은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 4.2 부모애착과 공감능력 간의 관계

부모애착과 공감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Panfile과 Laible(2012)은 영아와 어머니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형성되는 부모-자녀 간 애착은 아동의 공감 능력의 차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45]. 그 외 부모애착이 높은 아동들은 공감능력이 높았다고 보고한 연구들[46][47]이 있었다. 또한 부모애착은 친사회성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이 매개하였고[48], 부모애착과 사회적 능력, 사회기술 간에도 공감능력이 매개하였으며[49][50], 또래관계에서도 공감능력이 매개하였다[51]. 이와 같이 부모애착은 공감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4.3 공감능력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

개인의 높은 공감능력은 대인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서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고 더 나아가 학교

내 집단따돌림의 동조현상을 억제시키는 주요 변인이 되며 이러한 공감능력의 부족은 청소년 비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52]. Eisenberg와 Miller(1987)의 비행청소년과 공감과의 관계연구에 의하면 공감능력의 결핍은 사회 정서적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고 비행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공감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53]. 또한 청소년의 공감능력은 비행 수준에 부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청소년 비행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14], 아동의 또래 간 갈등을 공감훈련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4].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친구 간 갈등해결 관계를 살펴본 김지현(2002)의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갈등해결전략 기술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공감의 인지적 측면 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대인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이끌 수 있다고 하였다[52]. 이와 같이 공감수준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가 원만할 뿐만 아니라 친사회적 행동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본인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가치관과 태도형성에 영향을 주어 본인과 타인의 문제행동 경향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17].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과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 H1.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애착은 문제행동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애착은 공감능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북한이탈청소년의 공감능력은 문제행동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문제행동의 관계

에서 공감능력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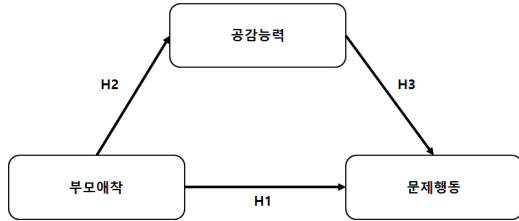


그림1. 연구모형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청소년 기본법(9세 이상 24세 미만)의 범위를 고려하여 북한이탈청소년 중에서 9세 이상 24세 미만인 자로 남한 적응교육기관인 ‘하나원’ 퇴소 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정한다. 그 이유는 북한이탈 과정에서 일반 학교 과정과 상이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학교에 재학·휴학인 학생은 제외하였다. 2020년 4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자들이 직접 탈북청소년을 대면하여 일일이 문항을 체크하고 응답하는 방식을 취했다. 설문조사 결과 총 300부 중 257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85.7%를 기록하였다.

## 3. 연구도구

### 3.1 부모애착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서 Gullone과 Robinson(2005)의 IPPA-R(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55]. 본 검사는 ‘신뢰’ 요인(10문항)[걱정이 있을 때 부모님께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지, 부모님이 자신을 믿어준다고 생각하는지, 부모님을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들], ‘의사소통’ 요인(8문항)[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대화 시에 나의 의견을 고려하며, 이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화 및 소외감’ 요인(10문항)[집에서 자신에게 무관심하며 아무에게도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 좌절이나 침체를 느끼는 것]으로 3개의 하위 요인으로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에 대한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부정적으로 진술된 문항은 역채점하였다. 본 척도는 최저 28점에서 최고 140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 애착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alpha$  계수는 다음과 같다. ‘신뢰’ 요인이 .90, ‘의사소통’ 요인이 .81, ‘화 및 소외감’ 요인이 .91이었고, 전체 신뢰도는 .9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3.2 문제행동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문제행동 측정을 위하여 Liu(2003)[56]가 Achenbach(1991)[57]의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을 새로 구성된 검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 우울, 불안, 위축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면화된 문제행동’ 요인(19문항)[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과 같이 위축, 불안, 우울 증상을 보이는 전반적인 내적 부적응을 의미]과 과잉행동, 공격성, 비행으로 이루어진 ‘외현화된 문제행동’ 요인(15문항)[비행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과 같이 공격성을 지니고 있거나 과잉행동 또는 비행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체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최저 34점, 최고 17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alpha$  계수는 다음과 같다. ‘내면화된 문제행동’ 요인이 .85, ‘외현화된 문제행동’ 요인이 .87이었고, 전체 6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 3.3 공감능력

북한이탈청소년의 공감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Davis(1980)[58]가 개발한 성인용 대인관계 반응척도 (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김성은(1997)[59]이 청소년에 알맞게 번안 수정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인지적 공감’ 요인(14문항)[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의식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과 ‘정서적 공감’ 요인(14문항)[공감 행위로 인해 촉발되는 정서적인 변화에 대한 것]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최저 28점, 최고 140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  $\alpha$  계수는 다음과 같다. '인지적 공감' 요인이 .96, '정서적 공감' 요인이 .94이었고, 전체 신뢰도는 .96으로 나타났다.

4. 자료처리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AMO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변수들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북한이탈청소년 부모애착, 문제행동, 공감능력과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였고,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Sobel-test를 사용하였다[60].

IV. 연구결과

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부모애착, 공감능력, 문제행동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모애착, 공감능력, 문제행동의 개념신뢰도인 CR(composite reliability: CR)과 평균분산추출지수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신뢰도 값이 각각 기준치인 0.7이상, 0.5이상으로 나타나 [표 1]과 같이 모든 측정도구에 대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모형의 변수에 대한 적합도가 모두 권장수준에 부합하였고, [표 2]와 같이 요인분석 결과 모든 요인부하량( $\lambda$ )이 0.647에서 0.882로 나타나 각 요인에 대한 수렴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표1. 확인적 요인분석의 모형 적합도

$\chi^2(p)$	df	RMR	GFI	NFI	IFI	CFI	RMSEA
16.249 ( $p=0.000$ )	7	.016	0.982	0.981	0.989	0.989	0.072

표 2. 확인적 요인분석의 연구결과

Path		S.T $\beta$	S.E.	t-value	개념 신뢰도	AVE
부모애착	→ 신뢰	.882	Fix	-	.907	.767
	→ 의사소통	.821	.055	14.406***		
	→ 화및소외감	.716	.064	12.459***		
문제행동	→ 내면화	.796	Fix	-	.814	.687
	→ 외현화	.757	.080	10.777***		
공감능력	→ 인지적공감능력	.647	Fix	-	.913	.841
	→ 정서적공감능력	.831	.107	8.886***		

\*\*\* $p<.001$

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변수 간 공분산 계산을 통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상관계수에서 0.90 이상이면 두 변수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수의 제거를 심각히 고려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활용될 변수에 관한 상관관계행렬에서는 이러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상관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지만 0.9보다 작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왜도와 첨도가  $\pm 5$  이하로 나타나 정규 분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 상관분석

	부모애착			공감능력		문제행동	
	1	2	3	4	5	6	7
1	1						
2	.744**	1					
3	.629**	.588**	1				
4	.455**	.280**	.299**	1			
5	.398**	.337**	.391**	.538**	1		
6	-.457**	-.567**	-.440**	-.391**	-.536**	1	
7	-.307**	-.214**	-.369**	-.421**	-.543**	.594**	1
M	3.29	3.06	3.23	4.08	3.90	2.49	2.25
SD	0.810	0.698	0.788	0.853	0.637	0.537	0.492
왜도	-.218	.208	.148	-.906	-.045	-.069	-.013
첨도	-.375	-.406	-.399	.133	-.463	.358	-.478

1=신뢰, 2=의사소통, 3=화 및 소외감, 4=인지적 공감능력, 5=정서적 공감능력, 6=내면화, 7=외현화  
\*\* $p<.01$

### 3. 차이검증

다음 [표 4]와 [표 5]는 *t*-test와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여 북한이탈청소년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부모애착, 공감능력, 문제행동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 부모애착 중, 신뢰( $t=1.992, p<.05$ )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분석결과 문제행동 중 내면화( $F=3.737, p<.05$ )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성별에 따른 차이검증

구분	성별	N	M	SD	t
신뢰	남	105	3.41	0.769	1.992*
	여	152	3.21	0.829	
의사소통	남	105	3.10	0.651	0.605
	여	152	3.04	0.730	
화릿소외감	남	105	3.33	0.739	1.715
	여	152	3.16	0.815	
인지적공감능력	남	105	4.19	0.789	1.783
	여	152	4.00	0.889	
정서적공감능력	남	105	3.85	0.639	-1.005
	여	152	3.93	0.636	
내면화	남	105	2.46	0.519	-0.741
	여	152	2.51	0.550	
외현화	남	105	2.29	0.511	1.213
	여	152	2.22	0.477	

\*\* $\alpha.01, *$  $\alpha.05$

표 5. 학년에 따른 차이검증

구분	학년	N	M	SD	F	Scheffe
신뢰	초등학교 <sup>a</sup>	114	3.32	0.768	0.452	-
	중학교 <sup>b</sup>	49	3.19	0.884		
	고등학교 <sup>c</sup>	94	3.30	0.824		
의사소통	초등학교 <sup>a</sup>	114	3.07	0.651	0.397	-
	중학교 <sup>b</sup>	49	2.99	0.644		
	고등학교 <sup>c</sup>	94	3.10	0.779		
화릿소외감	초등학교 <sup>a</sup>	114	3.26	0.765	1.172	-
	중학교 <sup>b</sup>	49	3.07	0.765		
	고등학교 <sup>c</sup>	94	3.27	0.825		
인지적공감능력	초등학교 <sup>a</sup>	114	4.20	0.772	2.334	-
	중학교 <sup>b</sup>	49	3.91	0.875		
	고등학교 <sup>c</sup>	94	4.02	0.921		
정서적공감능력	초등학교 <sup>a</sup>	114	3.94	0.646	1.987	-
	중학교 <sup>b</sup>	49	3.74	0.632		
	고등학교 <sup>c</sup>	94	3.93	0.621		
내면화	초등학교 <sup>a</sup>	114	2.50	0.522	3.737**	b<c
	중학교 <sup>b</sup>	49	2.65	0.456		
	고등학교 <sup>c</sup>	94	2.40	0.577		
외현화	초등학교 <sup>a</sup>	114	2.20	0.501	2.264	-
	중학교 <sup>b</sup>	49	2.38	0.447		
	고등학교 <sup>c</sup>	94	2.24	0.496		

\*\* $\alpha.01, *$  $\alpha.05$

### 4. 가설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으며,  $\chi^2$ , GFI, AGFI, RMR, NFI, RMSEA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표 6. 연구모형 적합도

$\chi^2(p)$	df	RMR	GFI	NFI	IFI	CFI	RMSEA
34.776 ( $p=0.000$ )	8	.017	.962	.959	.968	.968	.098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경로계수를 알아본 결과, 부모애착은 공감능력( $\beta=.555, p<.001$ )에 통계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감능력도 문제행동( $\beta=-.591, p<.001$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애착은 문제행동( $\beta=-.373, p<.001$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연구가설 검증 결과

Hypothesis		ST $\beta$	S.E.	C.R.	P	
부모애착	→	공감능력	.555	.067	6.681***	.000
공감능력	→	문제행동	-.591	.080	-6.133***	.000
부모애착	→		-.373	.055	-4.486***	.000

\*\*\* $\alpha.001, **\alpha.01, *\alpha.05$

다음 [표 8]은 부모애착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에 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연구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공감능력에 대한 직접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고( $\beta=-.373, p<.001$ ), 간접효과( $\beta=-.328, p<.001$ )와 총효과( $\beta=-.701, p<.001$ )도 모두 유의수준  $p<.001$ 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공감능력에 대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표 8. 공감능력의 간접효과

독립 변수	매개 변수	종속 변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부모애착	공감능력	문제행동	-.373***	.000	-.328***	.000	-.701***	.000

\*\*\* $\alpha.001, **\alpha.01, *\alpha.05$



부모애착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최종적으로 공감능력에 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60] Sobel-test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공감능력에 대한 매개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모형 분석 결과 부모애착이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공감능력을 매개하는 분석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9. 공감능력의 Sobel-test 결과

독립변수	parameter	종속변수	Sobel-test	
			Z-value	P
부모애착	공감능력	문제행동	-4.502	.000

## V. 결론

본 연구는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애착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으로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문제행동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애착은 문제행동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나타날 경향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는데 부모에 대한 안정 애착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43].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애착이 문제행동의 중요한 예측변인이라는 사실은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부모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부모는 북한이탈청소년들에게 좀 더 다양한 애착을 느낄 수 있는 방법과 행동을 통하여 자녀들과의 교감을 통한 심적 안정감을 형성시키고, 이를 통하여 문제행동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애착과 공감능력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애착은 공감능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공감능력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김아영(2014)[46]과 박상희, 이남옥(2014)[47]의 연구에서 부모-자녀 간의 애착정도는 자녀의 공감능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것을 지지한다. 즉, 북한이탈청소년들과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은 타인의 정서를 존중하고 공감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공감능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청소년과 부모와의 애착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확대가 요구되므로 사회복지 또는 상담심리 차원에서 올바른 애착관계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청소년의 공감능력과 문제행동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청소년의 공감능력은 문제행동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탈청소년의 공감능력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박지연, 이은희(2008)의 연구[14]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써 비행의 원인으로 공감능력이 작용할 수 있음을 검증한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즉, 공감능력이 뛰어난 청소년은 대인관계 수준이 원만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행동을 일으킬 경향이 매우 적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교생활에서 문제행동으로 꼽히는 교내 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예방하고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적절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여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감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애착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은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는 북한이탈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일으킬 경향이 감소하는데, 이 상황에서 공감능력마저 뛰어난 북한이탈청소년이라면 문제행동 수준이 더욱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북한이탈청소년의 공감능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북한이탈청소년이 탈출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이러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치료할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

스를 제공함으로써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가정은 부모님이 모두 계신 경우도 있지만, 어머니나 아버지가 남한에서 재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해부족과 관점의 차이로 인해 많은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61]. 이로 인해 어렸을 때 보호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와 결핍, 원망이 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복지서비스 차원으로 개입하여 부모-자녀 간의 애착관계 형성에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계의 연구가 제시되어함을 밝힌다. 또한 본 연구는 표집대상이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북한이탈청소년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1]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의 ‘착한(着韓)통계’ 시리즈 : 북한이탈주민 가족 편, 2016년 12월 제15호,”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www.koreahana.or.kr 2020년 09월 08일 검색, 2016.
- [2] 김유연, 손명아, 김석호, “가족과 사회적 관계가 탈북 청소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제41권, 제2호, pp.179-205, 2018.
- [3] 원미순, 유영림, 방진희, “학교 밖 탈북청소년의 탈북의 의미와 남한사회 삶에 대한 이해(생애사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9권, 제1호, pp.257-294, 2015.
- [4] 김희경, 신현균,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비교: 성과 연령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여성, 제20권, 제3호, pp.347-367, 2015.
- [5] 조영아, 김연희, 김현아,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7호, pp.33-57, 2011.
- [6] 이겨레, “북한이탈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1호, pp.157-180, 2011.
- [7] 한나, 이승연, 이지영, “북한이탈 청년의 문화적응에 따른 군집유형별 문화적응 스트레스, 일상적 차별감, 남/북 공동체 지지 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31권, 제2호, pp.77-100, 2017.
- [8] 모지환, 김연화, 유제민, “청소년의 애착과 자기통제가 심리적인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연구, 제20권, 제2호, pp.37-62, 2010.
- [9] F. T. Melges and J. Bowlby, “Types of hopelessness in psychopathological proces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Vol.20, No.6, pp.690-699, 1969.
- [10] 조민규, 김춘경, 송현정, “중학생이 지각한 학대경험과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 간의 구조적 관계와 성별에 따른 잠재평균분석,” 청소년복지연구, 제16권, 제2호, pp.54-79, 2014.
- [11] 한영주, 하창순, “부모애착과 자기통제력과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육군병사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2호, pp.805-814, 2016.
- [12] 송미옥, 이승희, “부모애착과 또래관계스트레스가 여중생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발달장애연구, 제15호, pp.1-20, 2011.
- [13] 채진영, “아동의 학업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제19권, 제1호, pp.71-87, 2012.
- [14] 박지연, 이은희, “청소년의 불안정 애착과 문제행동: 공감능력의 조절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0권, 제2호, pp.369-389, 2008.
- [15] 심숙영, “사회적 지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애착 유형과 영유아의 사회정서유능성 및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교육, 제25권, 제1호, pp.21-47, 2016.
- [16] 박영숙, “북한이탈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문화변용정체성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제23권, 제2호, pp.144-154, 2012.
- [17] 정명실, *아동의 공감수준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18] 최인화, 김현미, “초등학생의 공감능력, 부모애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서정신과학, 제17권, 제1호, pp.113-126, 2014.

- [19] 이하원, 채경희, “탈북청소년의 적응유연성이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18권, 제9호, pp.395-402, 2017.
- [20] J. Bowlby, *A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Basic books, 1988.
- [21] F. Musgrove, *Youth and social order*,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4.
- [22] M. Rosenberg, *Society and Adolescence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23] 이지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애착, 자아방어기제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24] 김신동, 이주화, 박성혁, “북한 이탈 청소년의 범의식 연구: 제 3 국 체류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제8권, 제1호, pp.57-80, 2013.
- [25] 김윤나, “북한이탈 청소년의 적응유연성과 교육적 함의,” 통일교육연구, 제7권, 제1호, pp.90-106, 2010.
- [26]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서울: 중앙정성연구소, 2001.
- [27] 이찬주, *부모의 부부갈등과 아동기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28] 이혜수, 정옥분,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과 청소년의 공격성과의 관계,” 한국가정교육학회지, 제16권, 제1호, pp.47-62, 2004.
- [29] 이수국,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과 부부갈등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중학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30] 목혜연, *새터민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심리적지지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31] 정슬기, *새터민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음주행위: 사회적 지지와 음주기대의 조절효과*,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32] 양계민, 황순택, “입국초기 새터민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상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제2호, pp.333-358, 2008.
- [33] 정병호, 양계민, 이항구, 임후남, 황순택, *새터민 청소년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방안 마련 연구*, 교육정책연구 결과보고서, 경기도 교육청, 2006.
- [34] 한하나, *괴롭힘 주변인의 행동과 감사, 공감, 학교소속감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35] 고아라, *사이버 불링을 목격한 중학생 주변인의 실태 및 영향 변인 연구: 공감능력 및 사이버공간 특성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36] S. Leiberger and S. Anders, “The multiple facets of empathy: a survey of theory and evidence,” *Progress in Brain Research*, Vol.156, pp.419-440, 2006.
- [37] 윤선아, *통합 상화에서의 소집단 공감활동이 자폐 범주성 장애 유아의 공감능력, 정서 표현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38] S. Baron-Cohen, *Zero Degrees of Empathy* (홍승효 역),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3.
- [39]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 교육 중단 연구(III)*(연구보고 RR 2012-08), 2012.
- [40] 맹영임, 길은배, 최현보, *탈북 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
- [41] 이정숙, 백지은, “아동의 애착과 자아지각 및 행동문제간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제9권, 제3호, pp.149-168, 2004.
- [42] K. J. Simons, C. E. Paternite, and C. Shore, “Quality of parent/adolescent attachment and aggression in young adolesc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Vol.21, No.2, pp.182-203, 2001.
- [43] 문은식, “청소년의 애착안정성과 학교생활 적응행동의 관계,” *교육학연구*, 제41권, pp.349-369, 2003.
- [44] J. P. Allen, C. Moore, G. Kuperminc, and K. Bell, “Attachmen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Vol.65, No.5, pp.1406-1419, 1998.
- [45] T. M. Panfile and D. J. Laible, “Attachment security and child’s empathy: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 regul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No.1982, pp.1-21, 2012.
- [46] 김아영, *초등학생의 부모-포레 애착과 따돌림과의 관계: 공감과 갈등해결전략의 조절효과*,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47] 박상희, 이남옥, “부모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 영향: 공감과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가족과 상담, 제4권, pp.1-18, 2014.
- [48] 김민주, *부모애착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49] 김정은, 도현심, 김민정, 김재희, “부모에 대한 애착이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공감능력의 매개적 역할,” 아동학회지, 제34권, 제3호, pp.129-150, 2013.
- [50] 차주환, *청소년의 신경증과 부모와의 애착안정성이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 주의조절과 공감의 매개역할*,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51] 윤세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공감과 또래관계에서 아동 공감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52] 김지현,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및 청소년의 공감능력 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53] N. Eisenberg and P. A. Miller,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s,” *Psychological Bulletin*, Vol.101, No.1, pp.91-119, 1987.
- [54] 김경아, *시간관리 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55] E. Gullone and K. Robinson,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R) for children: a psychometric investigation,” *Clinical Psychology & Psychotherap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 Practice*, Vol.12, No.1, pp.67-79, 2005.
- [56] X. Liu, *Parenting practices and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children in rural China*,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Harvard University, 2003.
- [57] T. M. Achenbach,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Vermont, 1991.
- [58] M. H. Davi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Vol.10, pp.85-104, 1980.
- [59] 김성은, *학생의 감정공명과 학업성적, 학급내 사회성, 학교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60] R. M. Baron and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6, pp.1173-1182, 1986.
- [61] 김형민, 이은경, “재혼가정의 부모와 청소년자녀의 적응과정 연구: 기독교인 재혼가정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23권, 제2호, pp.243-269, 2016.

#### 저 자 소 개

채 경 희(Kyung-hee Chae)

정희원



- 2008년 2월 : 북한대학원대학교(북한학석사)
- 2018년 2월 : 북한대학원대학교(북한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충신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

〈관심분야〉 : 북한, 북한이탈주민, 정치통일